

왕십리

평신도 신학 / 협동목사 문병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인물 / 목사 박영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

순교자열전 / 전도사 조성윤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함박웃음으로 내미는 손



내 마음의 풍경



약점

감추고 싶은 약점을
겸손히 드러내세요
그것또한 주님께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진·글 / 차주영

엑소더스 벨(Exodus Bell)

담임목사 오치용

영국의 존 던(John Donne)이란 시인은 영국 형이상학파의 거장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풍자시를 주로 썼는데 그의 산문시 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것이 있다.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양의 일부이다. 어느 사람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린다(Therefore, send not to know for whom the bell tolls, it tolls for thee).


이 시 안에 있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말이 미국의 소설가 헤밍웨이가 1940년에 간행한 장편소설의 제목이 되었다. 미국에서 대학강사를 지낸 로버트 조단이 반(反)프랑코파의 농민 게릴라부대에 합류하여, 공화군에서 지시한 철교폭파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마리아와 조단의 애틀한 사랑이 전개된다. 교량을 폭파했으나 다가오는 적군을 막으면서 사랑하는 마리아 일행이 피신할 시간을 얻기 위해 조단은 이미 총상을 입어서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적을 향해 총격을 가한다. 그리고 52년에 미국에서 영화화되었다.

조단의 죽음을 위해 울리는 종소리는 지금 내 마음 속에도 깊은 감동을 남기고 있다. 과연 그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렸나. 그 종은 죽음을 애도하는 조종이지만 그러나 그 종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지키며 희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리

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인류의 평화와 사랑의 헌신자들을 위해 아름답고 가슴 깊게 울리는 종소리. 깊이 늘린 영혼들을 풀어주기 위해 우리 대신 영적 전투의 길목을 지키며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위해서 엑소더스의 종이 우리 켓가에서 울리고 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목에 함께 나아가서 서는 이들을 위해 그 종은 영원히 울리리라. 엑소더스의 벨. 얼마 전 총회회관 앞에 종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듣고 이런 비전을 꿈꾸어보면서 제안해 보았다. 그 종을 엑소더스 벨(Exodus Bell)이라고 하고 일곱가지의 의미를 가진 종을 치자. 매일 낮 12시에 일곱 번 종을 치자. 먼저 새벽의 종. 그리고 회개의 종. 그리고 성령과 성결, 화평과 복음, 사랑의 종의 의미로 일곱 번 타종을 하자. 교회와 민족을 깨우되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종을 치자. 전국의 교회들이 그 곳을 방문하여 종을 치면서 영적으로는 그 종의 소리가 국민출애굽의 대행진을 일으키게 하자.

그렇게 될지는 모르나 분명히 한가지 확신하는 바가 있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엑소더스의 벨 소리이다. 그리고 그 종소리는 바로 사명의 자리에서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린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해방,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이제 다시 존 던의 시가 내 중심을 에리게 한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린다 



Contents



2006. 3월호

<p>3 출애굽단상 - 엑소더스 벨(Exodus Bell)</p> <p>5 평신도 신학 - 계시 : 하나님을 아는 지식</p> <p>9 이디오피아에서 날아온 편지 - 빛물과 생수</p> <p>10 성경인물 -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p> <p>14 우리집-작은 생각 큰 행복 - 감사합니다.</p> <p>16 순교자 열전 -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1)</p> <p>18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 들</p> <p>20 - 문병호 협동목사 왕십리이모저모</p>	<p>22 - 1907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 제 1차 학술 세미나를 마치고...</p> <p>함께 해봐요</p> <p>24 - 몽골어 :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중국어 : '가다'와 '오다'</p> <p>25 일상의 작은 그림 - 분리수거</p> <p>26 독자투고 - 이이삭 선교사입니다.</p> <p>왕십리 블로그</p> <p>28 - 북한에서 만났던 믿음의 형제 이야기 32 - 십자가가 사학법 수호시위 소품이라니</p> <p>가정예배</p> <p>33 책소개</p> <p>34 왕십리도서관 신간도서</p> <p>35 음반소개 말씀묵상</p>
--	---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삶 - 16가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

계시 :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협동목사 문병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계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계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존재

[1]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영으로서 살아계신 인격이신 삼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하시며, 공간에 갇히지 않으시기 때문에 편재(偏在, omnipresent)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외부적 필연성(necessity)에도 매이지 아니하시며 전지하시고(omniscient) 전능하십니다(omnipotent).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의 필연성(내신적 필연성, 內神的必然性)으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욥 38-42).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지으시고 인과관계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규정하시고, 스스로 옳으신 절대적인 영이십니다. 반면에 모든 피조물은 다른 것에 의지해서 존재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규정되지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

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찌어다 아멘(딤후 6:16)

[2]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갇히거나 매일 수 없기 때문에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거나 이를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성에 따라서 모양을 만들어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계시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섬기는 것 또한 우상숭배입니다(마 6:24). 카톨릭은 우상을 ‘무지한 사람들의 책(TEXT)’라고 했으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참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통하여서 온전히 분별하게 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요일 5:20-21)

루터는 성상(聖像)을 최소한의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칼빈은 성유물(聖遺物) 뿐만 아니라 성상(聖像)을 우상으로 여겨 엄격하게 금하였습니



다. 그는 보이는 형상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2계명을 율법에서 언급하며, 신학의 신론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특성’을 논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루터가 성상을 끌어 내리다가 그냥 두었다면, 칼빈은 이를 끌어 내려서 폐기했고, 녹스는 이를 갈기갈기 찢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자기계시(自己啓示)는 로고스(logos) 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만 수납(受納)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거듭난 이성(중생된 이성)으로만 이해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fides quaerens intellectum).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텐의 사람들과 같이 이성(理性)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 안에 가두어서 판단하고 조작해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자가 됩니다(행 17:22-31).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자신을 가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의 얼굴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히 1:3)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고(요 17:26),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요 14:7).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고후 4:6)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고후 4:4)’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빛이 아들에게 있고 우리에게도 조명되죠.



2. 계시(revelation) :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넓게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뜻을 아는 지식(cognition, knowledge), 과학적 지식(science), 그리고 감각적 지식(sense)을 포함합니다. 제네바 종교 개혁자로서 장로교의 시조인 칼빈의 불후의 명저 ‘기독교 강요’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Coram Deo) 서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성찰(省察)을 위해서는 자신을 관조(meditation)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으신 자(창조주)만이 지음 받은 것(피조물)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만 필연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 자신을 비출 때에만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와 그 의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를 비추어 볼 때에는 상대적인 가치에 경도(傾倒)된 우연한 존재로서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majesty)과 자신을 비교해 보기 전까지 사람은 결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께 붙들려 마음이 감동되거나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비천한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음의 성경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 아내의 고백 :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삿 13:22)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 너희는 바위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사 2:10, 19)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사 6:5)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사 6:2-3)

에스겔의 고백 :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겔 1:28-2:1)

아브라함의 고백 :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디(창 18:27)

엘리아의 고백 : 엘리아가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우

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왕상 19:13)

욥의 고백 :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즙먹은 의복 같으니이다(욥 13:280)

우리의 눈은 가시권에 있는 속한 것만 봅니다. 우리의 귀는 가청 주파수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는 자신을 비교하는 대상의 수준에 매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인격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행 17:28 전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고전 2:10-16).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참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합니다(요일 4:2).

3. 오직 믿음으로 수납(받아들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자기 계시는 오직 믿음으로만 수납(편집자주 : 받아들임)됩니다. 믿음에는 지식(knowledge), 감화(persuasion), 확신(assurance)의 세 요소가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나니라(히 11:2-3)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뵈옵나이다(욘 42:5)

여기서 귀로 듣는다는 것은 이성적 이해를 의미하고 눈으로 본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요 6:46)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아뢰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믿음을 표현

하는 것입니다(요 21:17).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 11:1)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즉, 소망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 즉, 이성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의 증거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곧 존재함이며, 믿음이 곧 이해입니다.

- (a)하나님의 존재와
- (b)그의 어떠하심과
- (c)우리를 향한 그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 (a)그의 영원하심을 인정하고
 - (b)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며
 - (c)그의 뜻을 좇아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르는 지식에 의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경건함(piety, godliness)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없대라고 말합니다. 경건함은 위로부터 오는 계시를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며, 예배로 올려드리는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빗물과 생수

엄경섭 · 차남준 선교사님은 본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으로 현재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본 글은 본 교회 선교계시판의 선교사 편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빗물이 샘물보다 맛있다고 물 전문가인 데일(Dale Halan)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데일이 그려준 청사진을 따라 양철 지붕에 흙통을 달고 양쪽 면에 1000리터나 되는 큰 플라스틱 물통을 각기 한 개씩 놓았습니다. 비가 조금 내렸는데도 적지 않은 양의 물이 플라스틱 물통에 찬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물을 그릇에 담아 정수해 먹었는데, 야릇한 맛이 있어 느낌이 상쾌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함석 성분이 섞여 들어가 물 맛이 짹짹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많이 내리자 물통 두 개는 물로 가득 차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시간이 지나고 물량이 많아 지면서 짹짹한 맛은 사라져 버려 이제는 물이 제법 마실만 하였습니다. 기지에서 함께 사역하는 현지인들도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얻게 되었다고 좋아하였습니다. 적어도 우기 동안은 물을 길으러 골짜기 아래까지 내려갈 필요도, 가축의 오물로 오염된 물도 마실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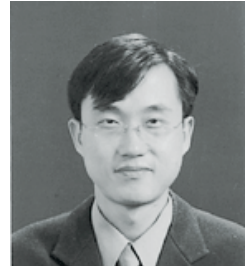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번갈아가며 샤워를 하였습니다. 집밖, 어두운 구석에서 물을 양동으로 받아 온 몸에 뿌리는데 물이 차가워 뼈 속까지 시려 오는 것 같았습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샤워를 하고 나니 온 몸이 아주 개운하고 느낌이 상쾌합니다. 열흘이나 넘게 땀으로 젖은 몸을 닦아 냈으니 몸이 얼마나 개운한 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물을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되어 마음 속에 있는 부담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설거지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얼굴도 발도 충분히 씻을 수 있고, 게다가 이제는 빨래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난 것을 놓치지 않고 그 동안 입고서 벗어 놓았던 묵은 옷들을 빨았습니다. 매달린 빨래줄에 걸려 있는 옷들이 따스한 햇볕에 싱그럽게 느껴졌습니다.

굶즈 아이들이 물려와 물탱크와 연결되어 있는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을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수도 꼭지를 열어 물을 강통에 담아 건네 주었더니 깔깔 웃으면서 마셔댁니다. 그 중에 용기있는 한 녀석은 물탱크로 다가가 수도 꼭지를 돌려 봅니다. 물이 나오자 녀석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야” 하며 소리를 질러 댁니다. 샘에서만 물을 구할 줄 알았는데, 지붕으로부터 빗물을 받아 큰 물통에 담고 그것을 원할 때마다 마실 수 있다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집 물통은 굶즈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철집과 마찬가지로 관광 거리가 되었습니다.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먼 마을에서도 와서 물탱크를 구경하러 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물려와 물탱크에 손을 대 보고 수도꼭지를 열어 봅니다. 옆에 놔둔 강통에 물을 담아 마셔보며 좋아하기도 합니다.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보고 좋아하는 이들이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기뻐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



부목사 박 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울어 줄 수 있는 위로자를 찾는다. 전도서 기자는 그러한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히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다(전4:1)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라! 낡은 밤색 옷과 허리에는 새끼줄을 동여 맨 채 맨발로 아씨시 거리를 다니며 평화를 노래한 청년 프랜시스. 그는 부유한 포목집의 아들이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로만을 찾아나섰다. 그는 거리에 버려진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성경 속에서도 또 한 사람의 위로자를 접하게 된다. 그는 낙망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분이였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인으로 이름은 요셉이다. 이후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사도들이 바나바로 명명하였다. 바나바는 ‘권위자’ 혹은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행4:36-37). 사도들이 왜 그런 탁월한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 그에게는 남달리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에 탁월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발을 팔아

서 사도들의 발 앞에 돌 만큼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아낌없이 살과 피를 떼어 주셨던 예수님처럼 그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그는 이웃을 위로할 수 있었다. 다른 이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아픔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은 그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다(행 11:24). 그의 빛된 행실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기에 충분했다. 대표적으로 사울을 짊어 수 있다.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아나니아에 버금가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사울은 회심하고 난 후에 도망자가 되었다. 동족인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 광주리를 타고 사막으로 피신을 했다. 그 후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어느 한 곳에 발을 붙일 곳이 없었다. 홀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독과 싸우고 돌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냉대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다. 사울은 무척 외로웠을 것이다. 그때 담대히 사도들 앞에 사울을 이끌고 간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바나바이다. 그는 사도들에게 사울의 회심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의 용기에 대해 날 날이 이야기해주면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바나바는 사울의 아픔과 깊은 고독을 보았고, 함께 아파하며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격려하였다. 또한, 바나바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기도 한다. 바나바는 이전에 핍박자였던 사울을 다시 이방인에 빛을 비추는 사도 바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운 참된 하나님의 동역자요, 일꾼이었다.

이때 안디옥의 지도자로 바나바가 천거되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

안디옥의 교회의 기반을 다진 바나바

디아스포라! 스테반의 순교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흩어졌다.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 일하고 계셨다.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확산되어갔다. 이 사람들의 소문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져나갔다. 이때 안디옥의 지도자로 바나바가 천거되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았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입니다. 그분께만 붙어 있으십시오.”(행 11:21-23).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며, 나를 살린다.”(시119:50).

바나바는 말씀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영혼을 소성케 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영적투쟁을 하는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었던 바나바. 그는 항상 자신의 형편보다도 다른 사람을 살피는 세심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다.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떠날 때에도 다소에 가서 직접 사울을 데리고 왔다. 사울에게 사역의 기회를 준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안디옥교회에서 바나바 사도와 동역의 기간을 갖게 되었다. 그

시기의 상황을 좀 더 쉽게 적용해 본다면, 바나바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부사역자의 삶을 시작했던 것이다. 드디어 바울은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바나바와 함께 전임 선교사로 파송받는 시기가 왔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까지 바울의 이름은 안디옥교회 지도자들 중에 맨 나중에 위치한다(행 13:1). 한동안 바나바와 사울을 언급할 때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식으로 기술했다. 이처럼 자기가 사역의 기회를 준 사울이 교회 지도자로 자신을 앞서는 것을 보면서도 바나바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훗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부탁했다. 그때 바울은 아마 은퇴한 선배 바나바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이다. 바나바는 나만 최고가 아닌 이웃을 세워주고, 함께 동역하는 일에 먼저였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안디옥에서 활활 타올랐다. 이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리스도인’라는 호칭까지 얻게 되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행 13:2). 하나님은 또다시 바나바를 부르셨



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 나가신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한 바나바와 바울은 안수를 받고 선교여행길에 올랐다.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의 주역이었으며, 선교사명을 위해 성령께 첫 번째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으로 가는 배를 탔다. 이때 이 두 사람에게 젊은이 하나가 동행하였다. 그는 바나바의 사촌 마가 요한이다. 그들은 먼저 살라미에서 배를 내렸다. 그리고 즉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 회당이라 하면 당대에는 외지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섬 전체를 가로지른 후 바보에 머물렀다. 그러는 동안 그곳 총독 서기오 바울이 소식을 듣고 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였다. 그런데 총독의 집안은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와 함께 하고 있었다. 사울은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본 후 그를 꾸짖었다. “당장 악행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총독은 이 광경에 소스라치

게 놀라며, 그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바나바와 바울은 결코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다.

이후 두 사도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항구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된다. 이때 동행하던 마가 요한은 선교여행을 중단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바울은 몹시 불쾌해 하며 반대를 하였다. 두 사도는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를 순회하며 만나는 이마다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다. 루스드라에서는 앓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자 많은 무리들이 바나바는 ‘쓰스’ 바울은 ‘허메’라고 추앙하여 받들었다. 그때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우리를 보지 말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극히 작은 종이길 원했던 바나바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주목케 하였다. 하지만 결코 선교여행은 평지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 좁고 험악한 십자가의 길이었다. 수많은 핍박과 추위와 고통이 따랐다. 돌을 들고 쫓아오는 무리들을 헤쳐 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줄 몰랐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고난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기를 원했다(행 13:50).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의 위로를 바랐다.

연약함을 감싸주는 바나바

이러한 험난한 선교의 길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다시 전도한 행선지를 재방문하자고 제안을 한다. 이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바울은 단연코 거절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두 사도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여 제 2차 선교여행길에 나서게 된다. 바나바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경에서 모습을 감추게 된다. 초대교회의 거인이었던 바나바는 이때부터 자신에 대한 흔적을 아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

무 곳에도 남기지 않았다. 우정이 깊을수록 단절의 고통은 더욱 크게 마련이다.

불우했던 시절, 모든 사람들의 불신 가운데서 유일한 신뢰를 보여준 바나바의 우정을 바울은 몇 번이나 회상했을 것이다. 특히 회심한 그를 사도들에게 데려가 믿도록 설명하여 주었고, 그를 찾아 다소까지 찾아왔던 일,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의 밤은 영원히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려운 난관이 생길 때마다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해결해 나가던 바나바의 지혜와 중용의 덕, 능숙한 중재 역할,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사람을 위로할 줄 알았다. 사도 바울의 영역이 점점 넓혀지고, 그의 영역이 점점 좁혀져 갈 때도 그는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질지라도, 조용히 물러설 줄 알았다.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세워줄 줄 알았던 넓은 마음의 소유자, 연약한 자를 다시 세우는 넉넉한 관용이 그에게는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를 위해 변론해 주고 바울에게 처음 사역의 기회를 주고 자신과 뜻을 달리했을 때도 꾸준히 자신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바나바. 바울은 바나바에게 깊은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는데 많은 학자들이 사랑장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말한다.

사랑과 위로의 사람 바나바.

이 시로 글을 마무리 한다. 

삶이 힘들어 지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나를 휩쓸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슬픔이 얼어지고 아픔이 치료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좌절하고 낙심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소망의 언덕에
서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실수하여 야단맞을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깨우쳐지고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다짐과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껴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썰물처럼 밀려가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정다운 모습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움이 일어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불평이 가득하고 웃음이 사라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불평이 떠나고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일은 매년 한 번씩 하는 일이다. 한 해를 뒤돌아보고 정리하고, 반성하고, 스스로를 칭찬과 격려도 하고, 또 새해의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다짐하는 일은 참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되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 기도원에도 가고 예수원에도 가서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찾아 가는 것 같다.

나 역시 2005년도 한 해의 마무리와 2006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남편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서 가지고 싶었다. 이미 나의 머리 속에는 예쁜 카페에 대한 그림과 고요한 음악, 따스한 분위기가 그려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한 해를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요.” 라고 말했고 남편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내 마음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카페에 갈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러나 막상 닷친 12월 31일은 내가 그린 그림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남편과 나는 9시 반 즈음 교회에 주차를 하고, 교회 주변의 커피 파는 가게를 찾았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찍 교회에 도착해서 주차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지만, 함께 이야기할 카페는 쉽게 찾을 수 없었

다. 신당역 근처의 작은 커피 전문점은 이미 손님들로 꽉 차 있어 남편과 나는 두 정거장 정도의 거리를 걸어갔다. 많은 가게들 속에 차(tea)만 파는 가게는 없었다. 있던 가게도 문을 닫아 버렸고, 술을 위주로 파는 곳이 되어버렸다.

나의 기대와 다른 짧은 한 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다. 남편은 미안한 마음에 나를 많이 달래주었는데도, 상한 나의 마음은 어찌된 일인지 풀리지 않았다. 내 마음의 기대는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컸던 모양이다. 내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아 남편의 얼굴도 굳어졌다. 우리의 12월 31일은 이렇게 살얼음판을 걸었다.

예배를 드리기 전 남편은 내게 속내를 이야기했다. 토요일에 회사 퇴근 후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친구를 돕기 위해 일찍 집에서 나왔고,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사주고, 계속 달래주고 많이 노력했는데 마음을 쉽게 풀지 않아 속이 상했다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가 심했구나. 미안하다. 남편이 많이 수고했다. 감사하다.’ 라는 생각과 함께 ‘왜 내 말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았다고만 생각했을까? 함께 춥고 어두운 밤길을 걸으며 카페를 찾을 때, 웃고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아가 남편의 수고에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해 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면 한 주간 일한 피

곤함까지도 날아갔을 텐데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나의 마음에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나는 우울한 마음을 떨치고 남편을 향해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었다.

가끔 내 마음의 상한 감정의 골짜기에 빠져있을 때(정말 그 감정은 무엇에 빠져있는 듯 느껴진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까지 그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 골짜기에 빠져있는 듯 느끼는 것은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감정 안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한 감정의 골짜기는 현재의 사건과 비슷한 과거의 비슷한 경험과 연결될 때, 더 깊어지는 것 같다.

감정의 골짜기, 상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상한 감정, 화난 감정을 정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난 상황을 잠시 떠나 조용히 혼자만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좋다고 이야기한다. 이 방법은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아이들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서너 살 된 아이도 ‘저 감정 정리하고 올게요’ 라고 부모님한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을 정리하는 훈련은 어른이 되어서도 큰 도움이 된다.

성인이라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상한 것과 화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화가 났다.

나에게도 말과 행동의 이유가 있듯이, 상대방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마음에 정리가 된 상태가 된다. 보통은 ‘도대체 저 사람은…….’ 이라는 생각 등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한 가지의 감정에 머물러 있는 그 때, 내가 원하던 어떤 것 대신 상대방의 수고와 노력을 떠올릴 수 있다면 금방 그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상대방의 마음과 수고에 대한 감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 훨씬 수월할 수 있다.

따듯한 밥상을 만들어 준 아내의 수고에 대한 감사. 하루종일 회사에서 일한 남편의 수고에 대한 감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자녀에 대한 감사. 자녀를 위해 수고한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이러한 감사들에는 우리 마음의 섭섭한 감정의 골짜기들을 메워주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

오늘은 남편이 늦게 퇴근을 했다. 늦게 온 섭섭함 보다 수고에 대한 감사함으로 남편을 맞으려 한다. 감사해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1)

전도사 조성윤

나의 생애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 내가 자라난 모든 환경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나의 아버지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로마시민권을 가졌다. 이 사실들은 젊은 날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지만 실상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었다. 아버지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군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때문에 전투하는 지방 총독들에게 장막을 공급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대단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이었다. 때문에 아버지는 유대인으로서 예외적인 영예를 획득할 수 있었다. 로마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나는 자연스럽게 극소수의 로마시민으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어가 아닌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헬라어를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게 되었다.

장막을 만드는 아버지는 비록 로마 군대를 위해서 일하기도 했지만 철저한 유대인이었다. 때문에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 아버지는 당시 가장 유명한 선생인 가말리엘에게 나를 부탁하였다. 가말리엘 선생님을 만난 나는 그에게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선생님 밑에서 성경을 배우며 내가 평생 싸울 유대교를 배웠다.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더욱 엄격하였고 항상 주목을 받아왔다.

나는 견고한 나만의 유대교에 빠져 있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나는 그저 가끔씩 나타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때때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던 일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수업을 충실히 받고 있었다. 산헤드린 공회를 견학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엘리트 지도자들 앞에서 내 지식과 능력을 보여야 하는 시기였다. 말 그대로 나는 어떤 젊은이들보다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 시기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나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던 내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부풀려진 소문 정도로 여겨졌다. 나는 그의 소문이 더 무성하게 들릴 때마다 그를 비웃었

나는 그들을 반역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내가 반역자였다.


다. 곧 사라져버릴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

왜 나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메시아로 보였는데 나에게만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을까? 나는 왜 그분을 그토록 멸시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나 자신의 선행과 자격에 대한 자만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유대인 중의 유대인였기 때문이었다. 율법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충실한 그의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이 있었다. 나는 예수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 잔당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이제 조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있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던 나는 청년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선택되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죽은 예수를 살아났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들을 찾아나서게 되었다.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최대의 봉사였다. 그 분을 향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나는 충성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하나님은 나를 가장 불충성한 반역자로 보고 계셨다. 나는 그들을 반역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내가 반역자였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착각하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함박웃음으로 내미는 손

문병호 협동목사



2006년 왕십리교회에 새로 오신 문병호 목사는 언제나 함박웃음으로 교인들을 만나다. 그의 이런 행동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 주는 듯 하다. 교육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른다는 점에서 가장 위대한 인류의 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문병호 목사는 총신대학교에서 신앙이 바탕이 된 인성교육을 통해 제자들을 세계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주일에는 장년1부에서 열정적으로 30대 젊은이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나 자신의 성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기쁨인 격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너 무 값싼 은혜만 좇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더 높은 기쁨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30대 젊은이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문병호 목사를 만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지난 삶에 대해 들었다.

Q. 어린 시절을 회상에 주십시오.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동네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돌아오시다가 갑자기 진통이 왔고 제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감이 많은 고장이라 감꽃으로 목걸이를 만들고 땅에 집을 짓기도 하며, 봄별이 따가울 즈음이면 개울에 씻어 맛보기도 한 추억이 새삼스럽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어머니는 월요일 새벽예배에 다녀오신 후 아침에 씻으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손에 물기가 마르기도 전에 저를 낳으셨고, 평생 물에 손을 넣고 장사하시며 저를 키우셨고, 씻으시다가 하늘 집으로 가셨습니다.

Q.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였는지 궁금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잘 했습니다. 특별한 별명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서로 연락한지 20년도 더 된 친구

가 전화상으로 대뜸 “야, 괴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나 회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이후 갑자기 몰려 온 인생 문제로 대학교 때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 활동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문학, 철학, 사회학 등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창 시절은 대체로 방황의 시절이었으며, 좋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기다리는 질문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이지는 않아서 친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친구는 거의 없고 대신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Q. 유학시절 어떤 것이 힘들었나요?

신학은 저에게는 즐거운 학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게 읽어도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학 때 어려움이라고 특별히 언급할

젊은이들 강한 용사로 키워낼 것 값싼 은혜보다 고백적신앙이 절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고시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기 위해 매달렸을 때에는, 이제는 공부하는 그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신학은 저에게 공부라기 보다는 은혜였으며, 신학 공부를 위한 유학 생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즐거운 수련회 같은 것이었습니다. 객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의 가족과 같이 유학 중에 저희 가정은 명령하신 분이 이루신다는 진리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Q.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나 목사님이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만세 전에 저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시고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목회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같구요. 어느 날 밤, 고요한 곳에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읽는 중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마음 속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남은 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지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사용하기로 하셨으며, 저는 단지 순종했습니다.

Q. 가족을 소개해주세요

하나님께서서는 저와 아내 서성희 사이에 원옥과 마리아를 낳게 하셨고 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뿌리고 가꾸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Q. 왕십리교회에 대한 인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사랑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남이 정겹고 더 깊이 보면 더욱 즐거워집니다. 겸손한 교회이며 시심이 흐르고 정이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교회입니다.

Q. 현재 충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자세이 알고 싶습니다.

가르치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학생의 마음입니다. 조직신학 중에서 신학서론(성경론), 기독교론, 칼빈의 신학, 그리고 라틴어를 가르칩니다. 대다수 제자들이 장래 목회자가 될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이 가득합니다. 기도하면서 가르치고자 합니다. 배우는 모습으로 가르치고자 합니다. 현재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 신학의 맥을 정리하는 책을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 걸음의 완급을 조절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영원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립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 제 1차 학술 세미나를 마치고...

지난 2월 10일 ‘19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 제 1차 학술 세미나’가 본 교회에서 있었다.

평양대부흥 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 총 7차에 걸쳐 개최 될 이 학술세미나는 교회와 사회라는 큰 틀 안에서 전문학자들에 의해 1907년 대부흥 운동을 학술적으로 되돌아보면서, 경건과 윤리, 예배와 부흥, 교육과 사회, 문화와 예술, 정치와 경제, 선교와 나눔, 그리고 민족과 통일 등의 영역에서 한국교회의 다음 100년을 위한 새로운 마스터 플래닝(master planning)을 정립하려는 매우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학자로 나선 박영규 박사는 평양대부흥은 말씀과 기도, 회개를 바탕으로 하는 성령에 의한 영적각성운동임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재확인시켰고, 두번째 학자인 이원설 박사는 평양대부흥운동에 대한 현시대의 사회, 정치, 경제적 영향 등을 지적하면서 출애굽운동(Exodus)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부흥운동이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원동력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였고, 한국교회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향해 힘찬 출발을 알리는 하나의 경적이 되었다.

본 교회가 다음 100년의 한국의 영적 대각성의 시발점이 되는 제2의 평양 장대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2006년 2월 행사 화보



왕십리지 수습기자 모집

오랜 역사속의 본 교회에서 성도들의 내일의 비전을 만들어 갈 소명있는 기자를 모집합니다.

그동안 왕십리지는 신문에서 격월간지로 외형의 변화는 가졌지만 교회 내외의 각종 소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구석 구석의 소식을 실어나르며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을 그려 내기는 성장하는 왕십리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많은 성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취재 기자: 0명

사진 기자: 0명

문서 발송 및 원고 정리 기자: 0명

자격: 본 교회 출석 교인



오늘은 서로의 이름을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물론 서로의 이름을 발음하기가 아주 어렵겠지만요.

Таны нэрийг хэн гэдэг вэ?

타니 네릭 헝 게득 왜? 타닉 헝 게득 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Намайг хонгил донг гэдэг. / Миний нэрийг 김지열 гэдэг./

나맥 흥길동 게득. 미니 네릭 김지열 게득.
저는 흥길동 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열 입니다.

Тантай танилцсандаа баяр!

탄태 타닐츠스다 바야르태 밴.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Баярлалаа.

바야를라.
감사합니다.

Баяртай.

바야르태.
(헤어질 때) 안녕.

Дараа уулзья

다라 오르씨.
다음에 만나요.

몽골과 한국의 설

얼마 전 설이지났습니다. 몽골 사람들도 역시 설을 씁니다. 몽골의 설이 하루 정도 늦더라구요. 몽골 사람들도 설이면 어른들을 찾아가서 꼭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혹독한 날씨 때문에 한국처럼 먼 고향까지 가진 않습니다. 언젠가 갈 기회가 되었을 때 그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을 꼭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몽골의 인사법은 한국하고 다릅니다. 아랫사람이 양손을 벌려 윗사람의 양손 밑을 지탱하는 듯 내어주면 윗사람이 그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혀 아랫사람에게 입맞춥니다. 또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세뱃돈을 주지만, 몽골에서는 한국과는 반대로 아랫사람들이 어른들에게 돈을 드리고, 어른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몽골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난 다음에야 서로의 나이를 물어보고 확실한 존칭을 사용합니다.



지난번에는 나를 ‘我(위, wǒ)’, 너는 你(니, nǐ), 그리고 그는 他(타, tā)로 배웠습니다.
 오늘은 ‘가다’와 ‘오다’를 배우겠습니다.
 가다는 갈 거(去)를 써서 ‘취(qù)’라고 읽고요, 오다는 올 래(来)를 써서 발음은 ‘라이(lái)(lái)’입니다.

그러면 ‘나는 간다’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나는 간다 我去 위취이(wǒ qù)

라고 합니다. 쉽지요? 그러면 주어를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네가 간다 你去 (nǐ qù)

그가 간다 他去 (tā qù)

우리가 간다 我們去 (wǒ men qù)

너희가 간다 你去 (nǐ men qù)

그들이 간다 他們去 (tā men qù)

간단하고 쉽지요.

‘오다’를 함께 해볼까요?

네가 오다 你来 (nǐ lái)

그가 오다 他来 (tā lái)

너희들 오라 你们来 (nǐ men lái)

그들이 오다 他们来 (tā men lái)

배운 범위내에서 다른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내가 가고 그가 온다. 我去 他来 (위취이 타라이, wǒ qù tā lái)

우리들이 가고 그들이 오다 我們去 他們来 (위먼취이 타먼라이, wǒ men qù tā men lái)

다른 문장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이삭 선교사입니다.

이동욱

어제 오전에 발인예배와 하관예배, 그리고 마지막 위로예배로 지난 토요일에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평생을 한국에서 사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한국에 모시는 것이 더 좋겠지만, 아버지와 누나 등 가족이 멀리 시드니에 있기에 이곳에 모셨습니다.

혼자되신 아버지, 십여일 전에 셋째 아들을 출산한 누나, 아직 반려자와 가정을 이루지 못한 저를 생각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일찍 가셨나 싶네요. 지금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마지막에 평안히 가셨거든요.

이 곳에서 누나가 전도사로 섬기는 새순교회 성도님들의 위로와 섬김도 감사하고, 이리도 멀리 왔는데 여전히 기억하시고 함께 마음 아파해주시는 왕십리 식구들에게도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으로, 집으로 전화해 주신 목사님께,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 해주신 권사님들과 친구분들께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리플로, 전화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올려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께서 감사해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는 그 마음이 더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족과 보름 정도 시간을 함께 하고

분리수거

지소영



풀릴 듯 하더니 또 찬바람이 불고
 녹을 듯 하더니 살얼음이 다시 얼고
 엇그제 삼월이 시작되었는데도
 봄은 좀처럼 햇살 뒤에 숨겨둔
 냉기를 가져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쓰레기 분리수거 날이었습니다.
 매주 정리해서 버리고 버려도
 어찌나 버릴 것이 많은지
 분리수거를 한 주만 걸려도
 집 안엔 잡다한 쓰레기가
 수북이 쌓이고 맵니다.

밤늦게 메일을 열어보니
 기숙사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긴 편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좀처럼 말 수도 없고
 그래서 말주변 없다고
 제가 늘 놀려대곤 하는데
 남편은 아주 긴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 왔네요.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의 줄거리 요약과
 하나님의 관심사와 자신의 관심사가
 달랐었다는 고백…….
 그리고 방학동안 먼지가 내려앉은 기숙사를

말끔히 청소하며 깨달은 이야기…….
 개강 첫 주를 보내며
 그는 마음속을 분리수거했나 봅니다.

저희 부부의 특징이라면
 저는 실제 삶보다는 글재주로
 그는 말이나 글보다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인데
 오늘은 남편이 글로서도
 충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아파트 복도에
 한 달 분량의 폐품을 모아 둔
 옆집 아줌마의 산더미 같은 분리수거를
 거둬고 들어오니 어느새 자정입니다.
 마음에 분리수거 할 것 별로 없는
 아이들은 만세 자세로 곤히 자고 있습니다.

때때로 복잡하고 심란해지는 마음속
 오늘처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
 척척 정리해서 버리고
 쓸고 닦아 내야겠습니다.

마음의 분리수거!
 할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만났던 믿음의 형제 이야기


북한에서 만났던 믿음의 형제 이야기입니다. 안내하던 요원이 저를 위해 얼음보숭이를 사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옆에 있던 노인이 제게 말을 걸었지요.

“어디서 왔시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은 잘 산다면서요?”
“예, 예수 믿는 나라라 잘 삽니다.”
“왜 예수 믿으면 잘삽니까?”

저는 짧지만 그 분에게 예수를 믿으면 왜 나라가 잘되고 개인이 복을 누리게 될까를 3분도 채 안 되는 극히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얼음보숭이를 사러 갔던 요원이 돌아오는 모습이 비치자 그 분이 돌아서며 남긴 한 마디가 지금까지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 한 마디를 누구와 나누고 싶어 얼마를 기다려왔을까? 그 분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도 좋을지 시험하기 위해 마음 졸이며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말고 다른 이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순간을 평생토록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가짜 교회라고 시비가 붙은 봉수교회에서 겪은 일입니다. 제 옆 자리에 계신 분이 목사님의 축음기 돌아가듯 관에 박힌 기도가 들려지는 순간, 모두가 눈감은 시각을 기다려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듯 나직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첫 사랑 연인의 손목에 잡힌 듯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던 곳, 봉수교회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

일부 교계지도자들은 봉수교회를 가짜라고 폄하하지만, 어떠한 열악한 상황 속에 있을 지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 곧 교회입니다. 진짜와 가짜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날 종교의 자유를 만끽하고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 즉 마땅히 가야할 길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하고 싶습니다.

윗글을 단편적으로 믿는다면 다소 감상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곳에도 잠시의 복음전파에 “할렐루야” 찬양을 절규에 가깝도록 간증하는 숨어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우리가 그렇게도 자랑하는 1,200만의 성도의 신앙보다 더 진실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규상


십자가가 사학법 수호시위 소품이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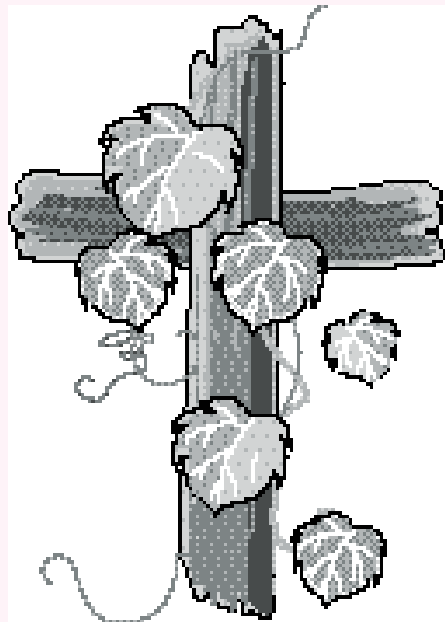
‘나 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구약성서 신명기 21:23)는 구절처럼, 십자가는 예수의 수난과 부활 이전에는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었다.

대부분의 서구 사회에서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죄악에서 거꾸로 기독교적 신앙을 상징하는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 되었다. 어느 사회에서나 ‘신성시’ 되는 것이 있다. 한국이 기독교 국가이자 기독교 사회는 아니지만, 특정 종교의 상징을 정치적·집단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소품쯤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불행한 일이다. 더욱이 천만명을 웃돈다는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을 감안하면 ‘십자가 시위’는 ‘신성모독’이다.

상대를 가장 심하게 모욕하는 방법은 상대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여기고 신성시하는 상징을 짓밟는 것이다. 말다툼을 하다가도 부모와 조상을 언급하면 주먹다짐이 되는 법이다. 때문에 동서 고금에서 가장 심한 욕은 공통된 모습을 띤다. 그 사람과 사회가 가장 신성시하는 것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서양에서 심한 욕은 모두 어머니 관련한 욕설이고, 종교적 상징을 모독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학법에 대한 찬반을 떠나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상징 ‘십자가’를 동원한 시위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그 ‘십자가 시위’가 기독교적 의미에 낯선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외부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설교하고, 따르라고 전하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더욱 참담한 일이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시위 소품’으로 쓰이지 않았다. 예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고다 고난의 길을 올라갔다.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가 시위의 소품이 되기에는 너무 신성하다 



첫째주

웃음을 가진 신앙인

창18:9-15

18: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8:10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8:11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18:12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오

18: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18:14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8:15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한국인의 정서는 웃음 보다 울음이 발달하였다. 울음이 필요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우리에게 울음이나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웃음이며, 즐거운 소리이다. 사라는 아들을 갖지 못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웃었다.

1. 그리스도인의 상징


그리스도인의 울음은 반드시 웃음으로 변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울음은 없으며, 울음이 많을수록 웃음도 얻는다. 하나님은 웃음을 주시는 분이며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 이시다. 다윗은 웃음보다 울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청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에도 그는 고통 속에 살았다. 그러나 시편 56:8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였지만 시의 뒤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제를 드린다. 다윗의 눈물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고 눈물병에 담은 감사의 제물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고통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도 함께 가지며 울음 뒤에 웃음을 가진다.

2. 교회의 상징

교회는 울음이 웃음으로 변한 곳이다. 십자가로 슬퍼하던 제자들이 부활을 계기로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없고 웃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팔

복은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의 규범이지만 한국 교인들은 '애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에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는 잊어 버린다. 구약의 성막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울음을 제거하며 하나님께 근거한 웃음을 제공한다.

3. 하나님 나라의 상징

그리스도인의 웃음도, 교회의 웃음도 상대적이다. 절대적 웃음이나 기쁨은 세상의 사람이나 교회가 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웃음은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울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사야 66장은 새 예루살렘을 노래하는데 이는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다. 10절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고 한다.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며 이 하나님 나라의 웃음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울음은 있으나 일시적이어서 야 하며 울음이 웃음을 지배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모두가 영원한 웃음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16:15-17

16:15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16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17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질문은 학습에 많은 효과가 있다. 또한 질문은 질문자의 해답에 대한 기대가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이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의 중요한 전환기에 이 질문을 하셨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대중전도를 마치고 복상하시는 도중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확인하신다. 대중적 그리스도관이 아닌 개인적 그리스도관을 질문하신다.

1.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질문은 일반 세인들의 그리스도관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다음 질문의 전제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의 예수님께 대한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많은 세인들이 흔히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관이 예수님의 관심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자들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최고의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한다. 예수님은 사람과 비교될 분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다.

2. 우리가 아는 예수님

세상의 그리스도관은 예수님께 만족스럽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 이상의

대답을 기대하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관심과 이해와 고백에서 차별화되어야 한다. 베드로의 대답은 삼년 간의 제자 훈련의 총결산이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모든 신앙고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든든한 신앙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는 문자적으로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자신이 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다.

3.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다. 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적 지식적 고백이 아니라 영적 지혜의 고백이다. 베드로는 신앙고백을 했지만 다시 마귀의 도구가 되고 모른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인간적 약함이 아니라 영적 신령한 지혜를 가져야 하며, 이런 신앙고백이 교회의 기초이다. 사람은 땅에 안 맞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향하고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비로소 인간의 구실을 할 수 있다. 짧은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신령한 지식으로 주님을 알자. 

제자의 길

왕하2:1-3

2:1여호와께서 호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2:2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엘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 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엘로 내려가니

2:3베엘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세상에는 갖가지 쉽고도 어려운 길이 있지만 어렵지만 보람 있고 꼭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자의 길이다. 제자의 길은 두 가지 원리를 포함하는데 첫째, 스승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며 둘째, 스승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다.

1. 제자의 길은 모험을 예측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제자의 모험을 미리 말씀하신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움 받는 이유는 단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이미 나를 미워하였다."고 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모험을 해야 한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버리고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하는 모험이 항상 따르게 된다.

2.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신다. 대가를 많이 지불한 자가 많은 사랑을 한다.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적게 받은 자가 보다 더 사랑한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 많은 대

가를 지불하셨다. 안셀름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빛을 갚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되는 길도 마찬가지로 대가지불의 필요성이 있다. 제자가 되기 위하여 형제와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3. 이 모든 것의 종합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당시의 중죄인들이 하던 일이었다.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사람들이 아닌가? 예수님이 달리셨다면 우리가 수백번, 수천번 달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므로 자기를 부인해야 질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한 자에게는 십자가는 가볍고 내 것이 되고 자랑스러운 것이 된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이 제자의 길을 기쁘게 자처하며 활기차게 가서 영광의 면류관 얻는 우리가 되자. 

기다림의 신앙

사25:9-12

25:9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열고자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25:10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25:11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 줄수 없삽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대

25:12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기다림은 그 자체가 희망이요 행복이다. 또한 기다림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자체가 의미이듯,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자체가 의미이다.

1. 기다림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다.

부활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믿음을 여러가지 말로 표현하지만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기다리는 사람의 관심은 미래에 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관심은 과거나 현재에 있다. 어리석은 부자는 현재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으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기다리며 미래에 관심을 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시련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일이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것이다.

2. 기다림은 예수님께 먼저 되는 것이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먼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기다리는 자가 먼저 됨을 가르친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인물은 마지막 시간에 온 일꾼이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려서 주인의 눈에 발견되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다. 천국은 부지런하신 하나님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의 합작이다. 룡펜로는 ‘일하고 나서 기다림을 배우라.’고 하였다.

사람이 한 일의 과정은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기다리지 않으면 결실을 볼 수 없다. 이 세상은 불의한 자가 우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다리는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3. 기다림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다.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은 예루살렘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었다.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지시를 받고 성전에서 매일 기다리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축복한다.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 기다림은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며 생활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재림을 대망하는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자. 




유쾌한 하나님의 낚시법

저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의나라 왕십리교회의 부목사이고, 백봉지구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남수목사님의 첫번째 출판물이다. 가득한 사랑과 성경말씀에 대한 명쾌하게 설명이 책에 담겨있다. 정치,경제의 제반 원리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 성경의 원리를 재미있는 사건과 예화 중심으로 설명한 책이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책으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맞볼 기회이다. 

저자 : 김남수 목사 출판사 : 조이출판사 가격 : 7,000원


네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요즈음 우리사회는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말을 시작하고, 책을 읽고, 셈을 하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영어에 제 2외국어를 시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어떠한가? 우리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는가? 그 어떤 교육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일 것이다. 성경으로 길러진 아이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저자 : 루 프리올로 출판사 : 미션월드라이브러리 가격 : 8,800원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 (The hidden smile of god)

존 번연과 윌리엄 쿠퍼,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에서 우리는 역경들을 견뎌낸 뿐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혼의 힘을 발견한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본질인 하나님을 경배함과 겸손이 태어났듯이, 우리들 역시 인생 중에 찾아오는 고통들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저자·역자 : 존 파이프·채대광 출판사 : 좋은씨앗 가격 : 8,000원

어? 이런 책이 들어왔네??!!

▶ 신앙 도서

18세기 영국의 영적 거장들(교회사의 영적 거성1) / 지평서원
2천년 동안의 정신 1-3 (기독교의 역사) / 살림
고도원의 따뜻한 이야기 아흔 아홉가지 / 가이드포스트
과학으로 만난 하나님 / 복있는사람
교회, 그냥 다니지 마라 / 좋은씨앗
구약성경 인물연구 상, 중, 하 / 목회자의집
그리고 하나님이 웃음을 창조하셨다 / 아모르문디
그림 천로역정 / 태인문화사
기도 / 황두용 / 대장간
나는 왜 그런 배우지를 선택했을까 / 지혜문학
나니아 나라를 찾아서 / 흥성사
나쁜 크리스찬 / 선미디어
나의 교회성장 이야기 / 서울말씀사
내 인생의 블루오션 / 교회성장연구소
내면적 행복이 익는 삶 / 예천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 경향문화사
대형교회가 아닌 초대교회를 선행하시오 / 설우사
만 동네 교회 / 평단문화사
로버트 맥케이(교회사의 영적 거성 2) / 지평서원
마음으로 하는 멘토링 / 국제제자훈련원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성서유니온
믿음의 역동성 / 그루터기하우스
믿음이 속삭 자라고 있어요 / 프리셋트
비율의 생애와 신학 / 대한기독교서회
별이 전하는 이야기 / 가치창조
복음서의 역사적 신빙성 / 솔로몬
복음주의 성경 현대성 / 크리스찬다이제
사람의 딸 / 문학나무
사랑하기 원합니다 / 서석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땅을 갈 때를 기다리며 / 아침형기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진흥
성경의 설득력 커뮤니케이션에 있다 / 프리칭아카데미
성경을 향해 달리는 열정의 마라톤 / 국제제자훈련원
성경과 코란 / 중심
성경이 말씀하시는 묵사학 / 니림
세피의 편지 / 흥성사
스핀지 성경 / 땅에쓰신글씨
신화의 역사 / 문학동네
실버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가정상담원
아는 만큼 보인다(기독교와 불교 비교) / 콰란
아베스의 기도 그 후 / 디오데
어떻게 믿고 성가야 할 것인가 / 나침반
어린이 성경 관동 / 규장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광야
역사 속의 내러티브 신학 / 한들
예언자, 죄인 그리고 성인들의 이야기 / 이마고
웨슬리 설교 해설 / 대한기독교서회
은혜와 감동의 설교 모음집-하를 지혜 2005 / 땅에쓰신글씨
이야기 성경(클래식 도서관 03) / 주니어김영사
자기 의심을 극복하기 위한 내가 누구인지 -- / 조이선교회
종교개혁사의 교회성장 리더십 / 교회성장연구소
주가 쓰시겠다 하라 / 국민일보
진리는 살아 있다 / 예영커뮤니케이션
정교도의 황태자 존 오웬(교회사의 영적 거성 3) / 지평서원
청소년부 다시 세우기 / 기독교신문사
파울 탈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 대한기독교서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시간 / 그리스십
하나님의 뜻을 갈망합니다 / IVP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 예수전도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 / 생명의말씀사
하늘 복을 받는 사람 / 규장
하늘 양식 땅 그릇 / 대한기독교서회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 한스미디어
하늘에 속한 8가지 행복 / 콰란
현대복음주의 / 할금부영이

▶ 일반 도서

2025년 미래 대 예측 / 김&정
20세기 세계역사 / 사계절
가정 CEO 아줌마의 살림 경영 / 지상사

거지왕과 행복의 비밀 / 지식의숲
거침없는 그리움 / 아트북스
고교학 이야기(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 이룸
고종, 스티브스에 გადა / 인물과사상사
교과서를 만든 수학자들 / 글금
꿈의 높이 8848m / 디른
나, 대한민국 과학자 / 이매진
나이로부터 편안해지는 법 / 예문
날마다 일어나는 화학 스캔들104 / 북스힐
내 사랑, 사복 / 사계절
내겐 너무 예쁜 당신 / 할금니침방
노태고 동화 / 글금지
니코미코스 윤리학 / 풀빛
다시 찾은 성의 르네상스 / 선미디어
단원종속도침 / 민음사
달려라, 아비 / 창비
대담 / 휴머니스트
대통령의 위기 / 이가서
대한민국 0.1% 초등 논술 / 황&리
대화가 즐거워지는 과학 상식사전 / 이지북
돈 버는 심리 돈 세는 심리 / 랜덤하우스중앙
동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행 / 즐거운상상
따뜻한 성공 / 북폴리오
미녀가 된 엘레나 / 현대문학
마린씨, 한국이 그렇게도 좋아요? / 현암사
마웃거리지 말고 시작해 / 샘터
모든 날이 소중하다 / 세미클론
몽태뉴 나는 무엇을 아는가 / 동서문화사
문명의 붕괴 / 김영사
미국은 지금 / 박영사
바람의 딸 사바누 / 사계절
바르블로매는 게기 아니다 / 사계절
바보들은 이렇게 묻는다 / 여백
바이러스, 삶과 죽음 사이 / 지호출판
반드시 성공하는 장사의 법칙 / 아틀미디어
방랑 / 마음산책
방학을 잘 보내야 다음 학기가 달라진다 / 예담
배려(마음을 움직이는 힘) / 위즈덤하우스
부자의 생각 반자의 생각 / 해냄
사람 후에 오는 것들/공지영 / 소담출판사
사람 후에 오는 것들/초지 히토나리 / 소담출판사
산사일기 / 오후에
실생의 부매랑 / 예교리브로
새로운 대한민국 이야기 / 샘터
새로운 한국경제 발전사 / 나남출판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는 여성 마케팅 / 위즈덤하우스
성공하는 자신을 디자인하라 / 조선일보사
세계는 평평하다 / 창해
세계의 고전을 읽는다 1, 2 / 휴머니스트
세계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쟁사리
세속의 철학자들 / 이마고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 고려대출판부
소크라테스의 재판 / 작가정신
소편하우어 문장론 / 지훈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를 가려냈을까 / 사계절
수상한 식모들 / 문학동네
스피드 경영 3분 시작학 / 일빛
시니어 버즈니스 / 북스투스북스
시인 박물관 / 현암사
어느 샬러맨의 죽음 / 뜻이있는 사람들
어제 이방인 사도를 치리우 / 사계절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 이룸
영웅 격정사 / 포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러나 잘 알지 못했다... / 여름언덕
의미 있게 산다는 것 / 위즈덤하우스
이야기책 읽어주는 노인 / 보리
잃어버린 여행기방 / 실천문학사
장다리 꽃 / 사계절
자중해 문명의 바다를 가다 / 한길사
참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 / 문예출판
천년고도를 걷는 즐거움 / 한겨레신문
철학 역사를 만나다 / 웅진지식하우스

초등 1학년 365일 / 예담
통설 / 사이언스북스
프랑스 뒷골목 옛보기 / 예담
프랑스적인 삶 / 밝은세상
하늘 어디까지 우리 집을 문든 날 / 사계절
한국 2030 신세대의 의식과 사회정체성 / 삼성경제연구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 백산서당
할머니의 기억 / 하늘그래
행운을 부르는 여자의 습관 / 눈과마음
호랑이는 왜 바다로 갔나 / 생각의나무
희랍, 마법의 사중주 / 그린비
희망을 짓는 건축가 / 스페이스
PD 마인드로 성공인생을 연출하라 / 사람in
SEFI 전망 2006 / 삼성경제연구소


▶ 어린이를 위한 도서

100가지 과학 1000가지 상식 / 세상모든책
김은섬의 전설 / 사계절
고슴도치 아이 / 보림
그리스에서 보물 찾기 / 아이세움
그림 속으로 떠난 여행 / 보물창고
다반치의 암호를 풀어라 (마법의 미술관 1) / 비룡소
돈, 돈? 돈이 왜 필요할까? / 동화사
똑똑한 만화 교과서 고사성어편 / 대교베셀스만
똑똑한 만화 교과서 속담편 / 대교베셀스만
마법 천자문 10 / 북이십일아울북
마술사 프레디 / 나들목
매력 덩어리 병균이 / 세상모든책
멋짐이 미장원 놀이(맥스랑 루비랑) / 달리
메이플 스토리 13 / 서울문화사
모두 다 제 자리에 (맥스랑 루비랑) / 달리
올래 한 기도 / 중앙출판사
방탄 마을 영미네 집 / 푸른책들
사람이 키운 북극곰 피스 / 북백크
사랑하는 내 아들이 세상을 다 가져라 / 가람문화사
삼승이와 삼식이 / 동화사
새우를 샀어요 (맥스랑 루비랑) / 달리
생일선물 장보기 (맥스랑 루비랑) / 달리
선물이 꼭 필요한 날 / 배틀북
설빙 / 사계절
아리스토텔레스가 들려주는 행복 이야기 / 자음과모음
왕사동 선사 주거지 / 해피북스
어느 산타의 일기 / 바이북스
어린이 박물관 (즐거운 역사체험) / 웅진신크빅
어린이 장자 / 휴리원
엘리베터 여행 / 풀빛
우리 할머니는 달라요 / 봄봄
웅이의 바다 / 낮은산
자이, 자유를 찾은 아이 / 사계절
작은 기적 / 문학동네어린이
작은 책방 / 길벗어린이
재미있는 명화 속 수수께끼 / 흥진P&M
전교 모범생 / 사계절
지식은 힘(101가지 사이언스 파워퀴즈) (수학) / 언어세상
플라톤이 들려주는 이데아 이야기 / 자음과모음
피터의 기묘한 몽상 / 아이세움
해빙이 뽀는 어디 있어 / 아동문예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4 / 문학수점
호랑이 목에 밧을 달기 / 푸른그림책
호랑이 왕자 / 웅진주니어
WHY? 공통 / 예림당
WHY? 남극북극 / 예림당
WHY? 똥 / 예림당
WHY? 물 / 예림당
WHY? 물리 / 예림당
WHY? 발명발견 / 예림당
WHY? 사춘기와 성 / 예림당
WHY? 핵파에너지 / 예림당
WHY? 화학 / 예림당
WHY? 화학 / 예림당

어린이찬양 베스트3집




가수명 : 땅끝까지어린이찬양단
 기획·배급사 : 씨씨엠지오
 가격 : 14,000원

‘CCM 어린이찬양 베스트3’은 그간 어린이 CCM으로 제작된 찬양베스트 시리즈 음반으로 1집 ‘예수님 사랑’, 2집 ‘땅끝까지’에 이어 이번 3집 ‘기도’를 출시하였다.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늘 변함없이 듣고 계시며 변함없는 은혜로 때에 따라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CCM 사역자 원종수씨가 프로듀서를 맡아 공개녹음을 통해 100여명의 아이들과 30교회 이상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연합하여 만들어냈다. 음반 제작 관계자는 “총 11곡을 수록하고 있는 이번 ‘기도’는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보여주어 더 한층 감동적인 음반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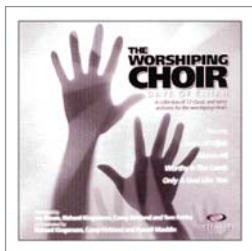
(사역 및 음반구입문의 031-384-3509)

노래로 외우는 성경말씀 2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2CD)

노래로 배우는 성경말씀 시리즈는 ‘수원 중앙기독교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찬양으로 말씀을 쉽게 재미있게 암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찬양집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고난을 겪어본 믿음의 선배라면 더더욱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 힘있는 말씀을 찬양으로 어릴 적부터 알고 머리와 가슴에 새긴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믿음의 유산이 될 것이다. 




가 수 : 열두광주리
 기획사 : KSR media
 정 가 : 9,000원



기획사 : Integrity Music
 배급사 : 인피니스
 가격 : 13,500원

The Worshipping Choir 성가대를 위한 모던 워십 합창

모던 워십송으로만 들던 주옥같은 찬양들이 성가대 찬양으로 편곡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 ‘Above all’, ‘Worthy is the lamb’, ‘Days of Elijah(4부예배 마칠 때 부르는 찬양)’ 등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찬양들이 수록되어있고, 이 찬양들이 4성부 합창과 함께 관현악으로 연주되어 또다른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악보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찬양에 관심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정면승부

여호수아 9:16-27

QT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삼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 삼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룻과 기랏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껍데 물 길는 자가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히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껍데 물 길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중 모세에게 명하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 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진저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껍데 물 길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 말씀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속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결과 기브온 사람들은 다행히 목숨은 부지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지요. 기브온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살려달라고 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봅시다. 가나안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모든 가나안 사람들 전멸시킨다는 소문에 두려워했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인 것입니다.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정면승부했다면 그들은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분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면승부를 하지 못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종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에서 살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잘 알라는 배려가 아닐까요?

살면서 늘 많은 일에 부딪치게 됩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맞아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조금 쉽게, 편하게, 빨리 하려는 마음에 잔피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참 잘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정당하게 부딪힐 것을 주님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종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예배안내 및 성경공부 안내

▶ 예배 안내

주일 예배

- 1부 : 오전 7시 30분
- 2부 : 오전 9시
- 3부 : 오전 11시
- 4부 : 오후 1시
- 백봉산 예배 : 오전 11시, 오후 2시
- 주일 찬양 예배 : 오후 3시

몽골어예배/중국어예배 : 오전 11시
수요 예배

- 1부 : 오전 10시 30분
- 2부 : 동절기 오후 7시 00분, 하절기 오후 7시 30분

기도회

- 새벽 기도회 1부 : 매일 새벽 5시
- 새벽 기도회 2부 : 매일 새벽 6시
-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9시

▶ 주일 학교 안내

- 영아부 : 오전 11시
- 유치부 : 오전 11시
- 유년·초등·중등·고등부 : 오전 9시
- 유·초등부 2부 : 오전 11시 30분
- 청년부(주일 4부) : 오후 1시

▶ 성경공부안내

- 새신자 7주 공부 : 각 예배 후
- 장년 1부 성경공부 : 오후 1시 30분
- 장년 2부 성경공부 : 오후 1시 30분
- 장년 3부 성경공부 : 오전 10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왕십리교회**

www.wpc.or.kr

발행인 : 오치용 목사

주 간 : 이종훈 집사

사 진 : 차주영

객원기자 : 배승원, 서명은

주 필 : 박영우 장로 지도 :

취재팀 : 장숙현 집사(팀장), 박남수, 임현석

지은정, 홍지혜, 이수정, 서주은

미술 디자인팀 : 김현정, 유정림, 김윤주

편 집 : 출판위원회 왕십리신문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왕십리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304
☎ 교회 : 02-2299-1011 출판실 : 02-2295-0114 FAX : 02-2292-0309 인쇄 및 제작 : 크리커뮤니케이션 ☎ 02-2285-4109